

한국인 대표 표본의 MBTI 유형 분포 연구 : 2012 - 2020년 자료를 바탕으로

송 미 리 · 박 보 민 · 강 새 하 늘 · 김 명 준*
(주)어세스타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MBTI 16가지 유형분포표의 근거가 되는 4가지 선호지표의 양분성(bimodality)을 살펴보고, 한국인의 MBTI 유형별 분포 비율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MBTI Form M 검사를 실시한 인원 중 19,070명의 데이터로 전국대표표본을 구성하였다. 표본 구성 시 연령 및 성별 비율이 대한민국 인구 분포와 동일하도록 비례층화표집으로 추출하였다. 연령은 16세부터 59세까지 포함하였으며 전체 인원 중 남성은 9,705명, 여성은 9,365명이었다. 분석 결과, MBTI 4가지 선호지표 응답값이 양분 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연령별로 4가지 선호지표의 분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16가지 유형별 분포의 경우 ISTJ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고 INFJ 유형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인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대표표본을 구성하고 2012년 이후 자료를 반영한 최신의 유형 분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SSR(self-selection ratio, 자기선택비율)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MBTI 사용자에게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선호지표 및 16가지 성격유형별 분포표가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MBTI, 양분성, 전국대표표본, 유형분포표, 자기선택비율

I. 서 론

MBTI가 심리 상담이나 조직 장면에서 자신과 타인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오랫동안 활용된 만큼, 특정 학과나 직군 등에 관련된 MBTI 성격유형 분포 및 특성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강보람, 주은선, 2019; 유정이, 1999; 장현재, 탁진국, 2004; 한명우, 1998). 특히 2020년을

* 교신저자: 김명준((주)어세스타 대표이사)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11 /
Tel: 02-787-1400 / E-mail: mjkim@assesta.com

전후해 자아정체성을 찾으며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며 이에 적합한 도구로 MBTI가 부상했고(김난도 외, 2020), 자신의 MBTI 유형과 타 유형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에 대한 의문 또한 커졌다. 하지만 현재 활용되고 있는 유형분포표는 약 10년 전에 수집한 MBTI Form M 한국판 표준화 데이터(2010년~2011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금의 시대상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의 제시에 심리검사의 정확한 사용과 활용에 중요한 요소이므로(장승민, 강연욱, 2012), 현재 시점을 반영한 새로운 MBTI 유형 분포를 제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해당 데이터는 18세 이상 일반인을 표집하여 연령대별 남녀 성별 비율이 비슷하게 포함되도록 하였으나 당시 한국인의 연령 및 성별 인구 분포를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다양한 집단의 유형 분포를 모집단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국대표표본(national representative sample)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Myers, McCaulley, Quenk & Hammer, 1998) 본 연구에서는 한국 MBTI Form M 표준화 작업 이후 축적된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인 전국대표표본 MBTI 유형별 분포 비율을 산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MBTI 16가지 유형분포표의 근거가 되는 4가지 선호지표의 양봉 분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선행하고자 하며, MBTI Form M 검사의 두 가지 채점 방식인 자가채점과 컴퓨터채점에 따른 유형 분포 비율의 차이 여부도 제시하고자 한다.

Isabel Briggs Myers가 개발한 16가지 성격의 유형도표(type table)는 4가지 대극적 선호지표를 조합하여 구성되었다(김정택, 심혜숙, 2013). MBTI 유형도표는 집단의 특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연구자의 가설 검증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타당한 자료로 구성된 유형분포표는 자기선택비율(self-selection ratio, 이하 SSR로 표기) 산출을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SSR은 하나의 유형이나 여러 유형 집단에서 기대되는 비율과 비교하여 실제 발생한 비율을 말한다(Myers, et al., 1998). SSR은 기준이 되는 집단에서의 MBTI 16가지 성격유형 각각의 비율에 대응하는 특정 표본에서의 유형별 비율로, SSR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기준 집단에서의 비율보다 표본 집단에서의 비율이 더 높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SSR을 활용하면 다양한 집단에서 16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이 실제 기대되는 비율보다 많거나 적게 분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CCL(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의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 2만여 명의 유형 분포표에서 세 번째 선호지표가 T, 네 번째 선호지표가 J인 ISTJ, INTJ, ESTJ, ENTJ의 비율은 각각 18.2%, 10.5%, 16.0%, 13.1%인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정택, 심혜숙, 2013), 해당 수치만으로는 각 유형의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수 없다. MBTI의 16가지 유형 각각은 6.25%, 즉 16분의 1이라는 비율로 분포하지 않으므로,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특정 유형의 상대적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유형 분포와 비교하여 SSR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집단인 미국의 전국표본에서 상기 4가지 유형의 비율은 각각 11.6%, 2.1%, 8.7%, 1.8%이므로,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 집단에서 유형별 SSR은 ISTJ=1.6, INTJ=5.0, ESTJ=1.8, ENTJ=7.3이 된다. SSR이 모두 1보다 큰 것으로 보아 미국의 리더 집단에는 전국표본 집단에 비해 TJ 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BTI 유형도표는 4가지 선호지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Carl Gustav Jung(1921/1971)의 이론과 그 이론이 포함하는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이분법을 가정하는 Jung의 이론에 근거한 선호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지표가 독립된 선호를 지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심리통계 용어로 표현하면 ‘4가지 선호지표 각각의 양분성이 성립되는가?’라는 가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Myers는 MBTI의 목적을 특성 측정이 아닌 유형 분류에 두었으므로, 심리적 선호가 이분법을 나타낸다는 Jung의 이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표별 연속점수가 두 개의 최빈값을 갖는 양분 분포(bimodal distribution)의 히스토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다. 그러나 Myers는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MBTI는 과학적인가?’라는 논란의 핵심이 되었다. 특성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집단의 특성을 한 가지로 구분 짓는 단일성(unimodality)이나 여러 개의 특성으로 구분 짓는 다분성(multimodality)을 기반으로 정규 분포(normal distribution)상의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 이에 비해 MBTI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지인지 바다인지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선호지표를 서로 다른 두 종류로 분류하기 위해 양분성을 기반으로 양봉 분포를 나타내는 점수 체계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MBTI 16가지 유형분포표의 근거가 되는 4가지 선호지표 각각에서 채점 결과로 산출된 히스토그램이 양봉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다음으로, 최신의 한국인 MBTI 성격유형 분포 비율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4가지 선호지표와 양봉 분포의 이론적 배경

1) 4가지 선호지표

Myers는 Jung(1921/1971)의 심리유형 이론(psychological type theory)을 일상에 적용하여 사람의 성격을 타당하게 분류하기 위하여 MBTI 성격유형 검사를 개발하였다. MBTI는 심리적 에너지 방향(외향(E)-내향(I)), 정보 인식(감각(S)-직관(N)), 의사 결정(사고(T)-감정(F)), 생활 양식(판단(J)-인식(P))을 기준으로 선호 경향성을 나타내는 4가지 선호지표와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16가지 성격유형(ISTJ, ENFP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MBTI 성격유형 분류의 핵심 개념인 4가지 선호지표 모두에는 사람의 성격을 기술 가능한 요인으로 체계화하고 요인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정의한 Jung의 이론이 고려되었다(Myers et al., 1998).

Jung의 심리유형 이론에 따르면, 감각(sensation)과 직관(intuition), 사고(thinking)와 감정(feeling)이라는 정신기능은 개인의 선호 경향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고유한 성격유형을 만들어내는데, 이 정신기능이 두 가지 태도 요인인 외향(extraverts)·내향(introverts)과 조합되어 8가지 심리유형이 도출된다(김정택, 심혜숙, 1990). Jung이 세분화한 8가지 심리유형은 외향적 감각(Se), 내향적 감각(Si), 외향적 직관(Ne), 내향적 직관(Ni), 외향적 사고(Te), 내향적 사고(Ti), 외향적 감정(Fe), 내향적 감정(Fi)으로 ‘정신의 8가지 유형’으로도

불린다(심리학용어사전, 2014).

Jung의 심리 유형론에서 영감을 받은 Katharine Cook Briggs와 그녀의 딸 Myers는 성격 진단용 설문지 초안(Form A)을 설계했고, 지인들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과정을 거쳐 성격 특징을 간략하게 분류하였다(Emre, 2018/2020). Myers는 인간 관찰(people watching)을 통해 Jung의 심리 유형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김정택, 심혜숙, 1990), Jung의 유형론에 원래 내재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던 범주인 판단(J)과 인식(P) 지표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MBTI 4가지 선호지표의 특징이 완성되었다.

표 1. MBTI 선호지표

선호지표	선호경향	선호지표
외향(E) Extraversion 사람이나 활동과 같은 외부 세계에 집중함	주의의 초점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가?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인가?	내향(I) Introversion 자신의 내부 세계의 생각이나 경험에 집중함
감각(S) Sensing 실제로 눈에 보이거나 실제로 일어난 사실 등의 정보를 수집함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기를 선호하는가?	직관(N) iNtuition 큰 그림을 보고 사실 간의 관계와 연관성에 초점을 두어 정보를 수집함
사고(T) Thinking 의사결정 시 선택이나 행동의 논리적인 절차를 보는 경향이 있음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가?	감정(F) Feeling 의사결정 시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배려함
판단(J) Judging 계획적이고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생활하며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자 함	어떤 방식으로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가?	인식(P) Perceiving 유연하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생활하며 삶을 통제하기보다는 경험하고 이해하고자 함

출처 : 김명준, 안여진 역 (2013). 성격유형 안내. 서울 : 에세스타

MBTI 검사는 개인이 심리적 선호(psychological preference) 경향성을 타고났다고 가정한다. 심리적 선호 경향을 나타내는 4가지 선호지표는 대극(polar opposite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동등한 가치와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김정택, 심혜숙, 2013). 선호지표 중 한 가지 경향성을 선택하는 응답 방식은 성격 측정 방식 중 유형론에 해당한다. 개인차의 변인을 연속적이고 양적인 측면으로 보는 특성론과 달리, 유형론은 성격을 서로 분리된 비연속적인 범주로 구분하므로(김정택, 정덕자, 1998), MBTI는 진단이 아닌 성격유형 분류를 목적으로 활용된다. MBTI의 성격유형은 총 16가지로 구성된 명목형 자료로, 성별과 같은 범주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MBTI 검사는 Myers가 최초로 개발한 이후 11번의 개정 작업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김정택과 심혜숙(1990)이 1987년부터 4년 동안 표준화 작업을 진행한 Form G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Form M(Step I, 자가채점 또는 컴퓨터채점)과 Form Q(Step II, 컴퓨터채점) 버전의 검사를 사용하고 있다.

2) 4가지 선호지표의 양봉 분포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특성(trait) 기반의 심리검사와 달리 유형(type) 기반의 MBTI 검사는 양봉분포를 가정한다. 특성 기반 심리검사의 응답값은 정규분포를 이루며 정규분포의 경우 주로 양쪽 끝의 극단 값에서 큰 의미를 찾지만, 집단의 특성을 서로 다른 두 종류로 구분하는 양봉분포의 경우 분할 지점인 중간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Myers, McCaulley, Quenk & Hammer, 2018). 따라서 MBTI 검사의 기본 가정인 대극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분성을 구현할 수 있는 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Emre, 2018/2020),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선호지표의 히스토그램을 산출하여 양봉 분포를 확인하고자 한다.

피험자의 잠재적 특성 분포를 사전에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문항반응이론을 통해 문항 모수와 개인의 θ 점수를 산출하게 되면 경험적 히스토그램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규분포가 아닌 피험자의 잠재적 특성 분포를 정규분포로 잘못 가정하고 분석하게 되면 모수 추정에 무시하지 못할 수준의 편의가 발생한다(김성훈, 2012, Li & Cai, 2018; Monroe, 2014; Monroe & Cai, 2013; 강혜진 & 이규민, 2020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정된 구적점(quadrature point)에 모집단 분포의 확률 밀도를 추정하는 방식의 경험적 히스토그램 방법이 제안되었고(Bock & Aitkin, 1981; Mislevy, 1984), 본 연구에서도 자가채점 결과로 원점수 기반의 히스토그램을 산출하여 잠재적 특성 분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추정하고자 한다.

2. 유형도표의 이론적 배경

유형도표는 Myers가 고안한 ‘성격유형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표현 방법’ (김정택, 심혜숙, 2013)으로, 성격유형의 이론적 타당성과 분포 비율을 실용적으로 보여준다(Macdaid, McCaulley & Kainz, 1995). 16가지 MBTI 성격유형을 하나의 표로 제시한 유형도표는 상·하 사분면, 좌·우 사분면에 일정한 패턴을 적용해 항상 동일한 순서로 배열된다(Macdaid, 1997). 상·하 사분면은 위쪽 두 칸이 내향(I), 아래쪽 두 칸이 외향(E)을 나타냄과 동시에, 위에서 아래 순서로 첫 번째 칸은 판단(J),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은 인식(P), 네 번째 칸은 판단(J)으로 이루어져 있다. 좌·우 사분면은 왼쪽 두 칸이 감각(S), 오른쪽 두 칸이 직관(N)을 나타내면서,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첫 번째 칸은 사고(T),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은 감정(F), 네 번째 칸은 사고(T)로 구성되어 있다.

Myers가 제시한 유형도표 배치 기준은 4가지 선호지표별로 설명할 수 있다(김정택, 심혜숙, 2013). 내향(I)은 구름 속에서 자신의 머리를 위로 들려는 경향이 있고 외향(E)은 자신들의 발을 땅에 디디려는 경향이 있어서 위·아래로 배치되었다. 감각(S)과 직관(N)은 대극의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대로 나타나 있다. 관계 욕구가 강한 감정(F)은 중간에 위치해 다른 유형에 둘러싸여 있고, 객관성과 독립성을 선호하는 사고(T)는 바깥쪽에 있는 형태로 배치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단호한 판단(J)이 위·아래로 곁에 위치하여 중간에 위치한 인식(P)을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유형도표는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한눈에 자기 유형의 위치뿐만 아니라 타 유형과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태도 지표 조합(IJ, IP, EP, EJ), 심리기능 지표 조합(ST, SF, NF, FT),

에너지 방향과 인식에 따른 사분할 조합(IS, IN, ES, EN), 기질 조합(SJ, SP, NF, NT) 등은 집단별 특성을 공유하고 다른 유형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Myers & Kirby, 1998/2013).

유형도표의 형태는 16가지 성격유형만 나타낸 도표와 유형 특성, 각 유형별 분포 수와 비율, 한 유형에 대한 기대 비율 대비 실제 발생 비율인 SSR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도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국가 인구 비율을 반영한 전국대표표본을 활용하여 MBTI 유형분포표를 산출하면 통계적으로 더욱 의미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유형분포표를 연령별, 성별, 직군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응용한다면 개인이나 조직 장면의 요구에 맞게 MBTI를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SSR을 포함한 유형분포표를 산업별·직업별로 제시하여 직업상담사와 같은 실무자와 연구자, 구직자에게 유용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Schaubhut & Thompson, 2008).

현재 한국의 MBTI 유형분포 자료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MBTI Form M 한국 표준화 당시 표본에 속한 3,623명을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김정택, 심혜숙, 2013). 해당 데이터는 연령대별 성비가 50:50에 가깝게 구성되도록 하였으나, 이는 대한민국 인구 분포 비율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다. 김정택과 심혜숙(2013)이 한국인의 MBTI 유형분포 자료를 구성한 이후 약 10년이 흐른 현재, 학교나 회사 등 다양한 장면에서 MBTI 선호지표나 유형분포에 따른 응용 연구가 지속되고 있기에(정예진, 원미진, 2021; 황보식, 장해숙, 2016; 이재용, 2015), 한국인의 유형분포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현시점을 반영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커졌다. 더불어 16세부터 50대까지 연령대별로 다량의 MBTI 검사 응답 데이터를 확보하여 대한민국 인구 분포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졌기에 표준화 이후 축적된 데이터로 유형분포 분석 자료를 새로 구성하고자 한다.

표 2. MBTI 유형도표 및 지표 조합

MBTI 16가지 성격유형 도표					지표 조합						
		감각(S)		직관(N)							
		사고(T)	감정(F)	사고(T)							
내향(I)	판단(J)	ISTJ	ISFJ	INFJ	INTJ	태도 지표	IJ				
							IP				
	인식(P)	ISTP	ISFP	INFP	INTP		EP				
							EJ				
외향(E)	판단(J)	ESTJ	ESFJ	ENFJ	ENTJ	기능 지표	ST	SF	NF	NT	
	인식(P)	ESTP	ESFP	ENFP	ENTP		사분할	IS		IN	
								ES		EN	
외향(E)	판단(J)	ESTJ	ESFJ	ENFJ	ENTJ	기질 지표		SJ		NF	NT
								SP			
	인식(P)	ESTP	ESFP	ENFP	ENTP		SJ				

표 3. MBTI Form M 표준화 기준에 따른 16가지 유형별 분포

Form M 표준화 표본의 성격유형 분포(N=3,623)				
		감각(S)		직관(N)
		사고(T)	감정(F)	사고(T)
내향 (I)	판단 (J)	ISTJ N=532 14.7%	ISFJ N=305 8.4%	INFJ N=137 3.8%
		INTJ N=200 5.5%		
	인식 (P)	ISTP N=170 4.7%	ISFP N=215 5.9%	INFP N=235 6.5%
		INTP N=157 4.3%		
외향 (E)	판단 (J)	ESTJ N=160 4.4%	ESFP N=193 5.3%	ENFP N=304 8.4%
		ENTJ N=128 3.5%		
	인식 (P)	ESTP N=387 10.7%	ESFJ N=237 6.6%	ENFJ N=125 3.5%
		ENTP N=138 3.8%		

출처 : 김정택, 심혜숙 (2013). MBTI Form M 매뉴얼. 서울 : 어세스타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진은 MBTI 공식 보급 기관인 (주)어세스타로부터 자료 사용 허가를 받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MBTI Form M을 실시한 인원 중 19,070명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2017~2019년 평균 연령별 인구 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대한민국 인구 분포와 동일한 연령, 성별 비율로 비례층화표집(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을 진행하여 추출된 표본이다. 비례층화표집이란 모집단에서 각 집단이 차지하는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의 크기를 정하여 표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인구의 연령 및 성별 분포와 거의 동일하게 추출한 데이터이므로,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져 모집단인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특성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비례층화추출은 총 3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1단계로, 모집단의 층화/층별 목록을 작성하였다. 즉, 모집단을 연령별, 성별로 총 88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연령의 경우 15세 이하 및 60세 이상은 제외하고 16 ~ 59세의 총 44개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2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2단계로는, 층별 표본 크기를 결정하였다. 검사 실시 인원수가 가장 적은 59세 남성을 기준으로 삼고 상대적 비율로 층별 표본 크기를 산정하였다. 마지막 3단계로, 각 층별 표본을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 도출한 집단별 표본 크기를 기준으로 MBTI 검사 결과 데이터에서 각 집단별로 무선 표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로 추출한 표본 집단의 성별 및 5개 연령대별 분포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MBTI Form M 유형 분포 분석용 표본의 성별 및 연령대별 분포 (N=19,070)

구 분		연령대					전 체
		1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성 별	남	747 (3.9)	2,094 (11.0)	2,117 (11.1)	2,440 (12.8)	2,307 (12.1)	9,705 (50.9)
	여	719 (3.8)	1,870 (9.8)	2,118 (11.1)	2,463 (12.9)	2,195 (11.5)	9,365 (49.1)
전 체		1,466 (7.7)	3,964 (20.8)	4,235 (22.2)	4,903 (25.7)	4,502 (23.6)	19,070 (100.0)

2. 측정 도구

심리적 선호지표 및 성격유형 분포 확인을 위하여 MBTI Form M 검사를 사용하였다.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Jung(1921/1971)의 심리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Briggs와 그녀의 딸 Myers가 개발한 심리검사로(Myers, et al., 1998), MBTI Form M 한국판은 표준화 과정을 거쳐 2012년 제작되었으며 자가채점 방식과 컴퓨터 채점 방식이 있다(김정택, 심혜숙, 2013). MBTI에서는 문항에 응답한 결과에 따라 4가지 대극적 선호지표의 조합으로 총 16가지 성격 유형 패턴이 만들어진다. 총 문항 수는 93개이며, 지표별 문항 수는 E(외향) - I(내향) 지표가 21개, S(감각) - N(직관) 지표가 26개, T(사고) - F(감정) 지표가 24개, J(판단) - P(인식) 지표가 22개로 구성되어 있다. 선호지표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E-I 지표가 .930, S-N 지표가 .897, T-F 지표가 .914, J-P 지표가 .929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교차분석의 경우 자가채점과 컴퓨터채점 결과 간의 관계성을 검토하였고 각 채점 방법별로 선호유형별 성별 간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Excel을 이용해 자가채점 기반의 지표별 히스토그램을 산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4가지 선호지표의 양봉 분포

자가채점을 통해 합산된 원점수 기반의 지표별 히스토그램은 그림 1·2·3·4로 표현된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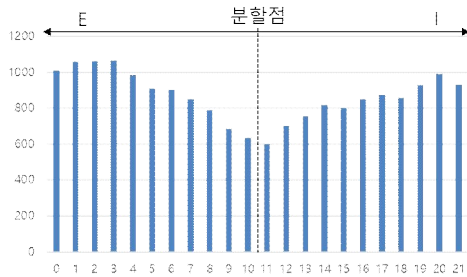


그림 1. E - I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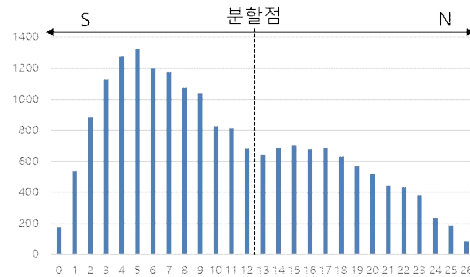


그림 2. S - N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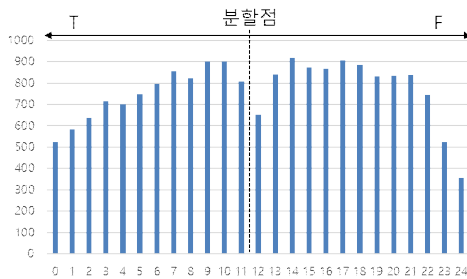


그림 3. T - F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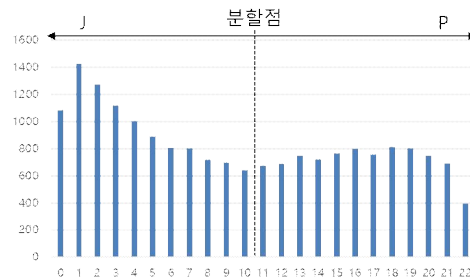


그림 4. J - P 분포

E-I 지표의 경우 원점수가 11점 이상일 경우 I, 아니면 E로 분류되는데, 해당 분류 지점에서 빈도가 감소하며 분할점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규분포로 가정하기보다는 11점을 기준으로 양쪽에 각 최빈값인 3점(1,066명, 5.6%)과 20점(991명, 5.2%)을 가지는 양봉의 형태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N 지표의 경우 원점수가 13점 이상일 경우 N, 아니면 S로 분류되는데, 해당 분류 지점에서 빈도가 감소하며 분할점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N 지표는 E-I 지표와 다르게 S의 비율(63.8%)과 N의 비율(36.2%)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정규분포가 아닌 비정규성을 가정해야 한다. S-N 지표는 중앙값인 13점을 기준으로 양쪽에 각 최빈값인 5점(1,324명, 6.9%), 15점(705명, 3.7%)을 가지는 양봉의 형태로 해석이 가능하다.

T-F 지표의 경우 원점수가 12점 이상일 경우 F, 아니면 T로 분류되는데, 마찬가지로 해당 분류 지점에서 빈도가 감소하여 분할점이 형성된다. T-F 지표는 E-I 지표와 유사한 형태의 히스토그램을 보이지만 중앙값 12점을 기준으로 양쪽에 각 최빈값은 9 & 10점(900명, 4.7%), 14점(920명, 4.8%)을 가지는 다봉의 형태를 보였다.

J-P 지표의 경우 원점수가 11점 이상일 경우 P, 아니면 J로 분류되는데, 해당 분류 지점에서 빈도가 소폭 감소하며 중앙값인 11점을 기준으로 분할점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J-P 지표는 J의 비율(54.9%)과 P의 비율(45.1%)이 차이를 보이며 정규분포가 아닌 비정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앙값 11점을 기준으로 양쪽에 각 최빈값인 1점(1,425명, 7.5%), 18점(813명, 4.3%)을 가지는 양봉의 형태로 해석이 가능하다.

2. 4가지 선호지표별 분포

MBTI 16가지 유형을 구성하는 기초인 4가지 선호지표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분포 경향을 확인하였다. 선호지표별 분포 산출 시 자가채점 기준을 적용하였다.

1) E - I (외향과 내향)

그림 5에 MBTI 자가채점 기준에 따른 연령별 E - I 선호지표 분포를 제시하였다. 16세부터 51세까지는 전반적으로 E 유형이 50% 이상으로 I 유형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후부터는 I 유형의 비율이 점차 50% 이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5와 그림 6·7에서는 각각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E - I 선호지표 분포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16세 이후 즉, 시작점부터 E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I 비율보다 높은 경향을 유지하다가 45세를 기점으로 I 비율이 50% 이상으로 E 비율보다 높아져 59세까지 유사한 경향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마찬가지로 16세 이후 E의 비율이 I 비율보다 높은 경향을 유지하다가 54세를 기점으로 E와 I의 비율이 모두 50%에 근접하여 양극 지표의 분포 비율이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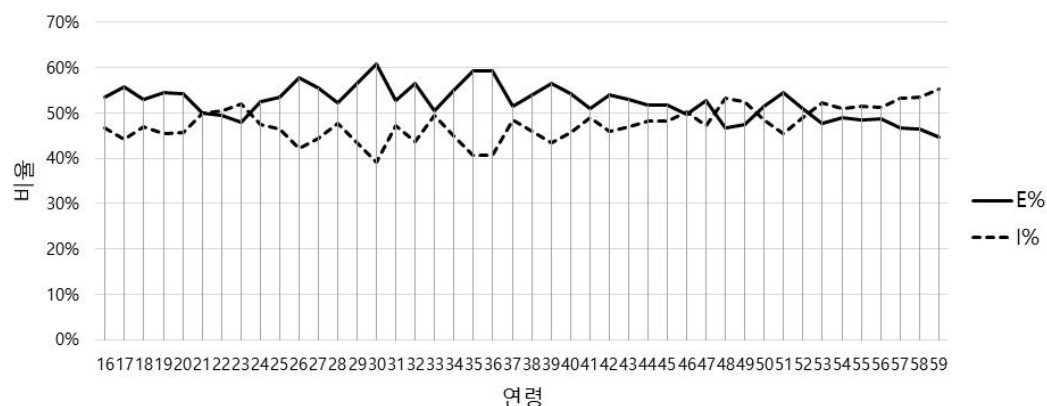


그림 5. 연령별 E - I 선호지표 분포 비율 (N=19,070)

표 5.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E - I 선호지표 분포 비율 (N=9,705)

구 분		남		여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선호지표	E	4,925	50.7	5,035	53.8
	I	4,780	49.3	4,330	46.2
전체		9,705	100	9,36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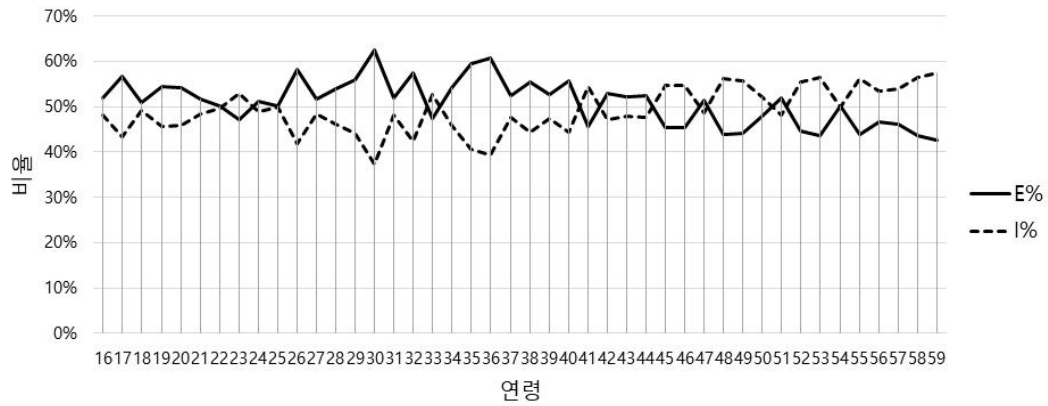


그림 6. 남성의 연령별 E - I 선호지표 분포 비율 (N=9,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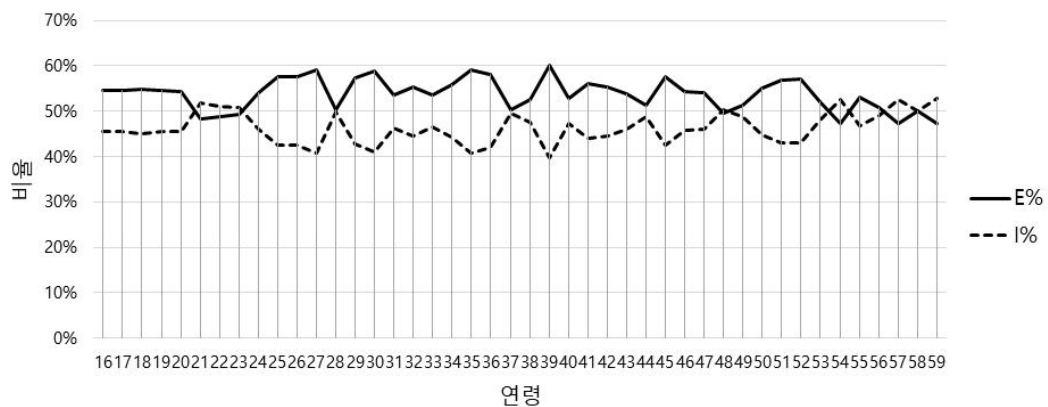


그림 7. 여성의 연령별 E - I 선호지표 분포 비율 (N=9,365)

2) S - N (감각과 직관)

그림 8에 MBTI 자가채점 기준에 따른 연령별 S - N 선호지표 분포를 제시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6 ~ 19세 사이에는 S와 N의 차이가 크지 않고 50:50 수준으로 분포하나 20세를 기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S 유형의 비율이 증가하여 70% 수준까지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6과 그림 9·10에서는 각각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S - N 선호지표 분포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16세 집단에서는 N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S보다 높으나 이후에는 점차 S의 비율이 70% 수준으로 높아지고 N의 비율은 30%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17세 집단에서는 N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S보다 높으나 남성과 유사하게 점차 S의 비율이 70% 수준으로 높아지고 N의 비율은 30%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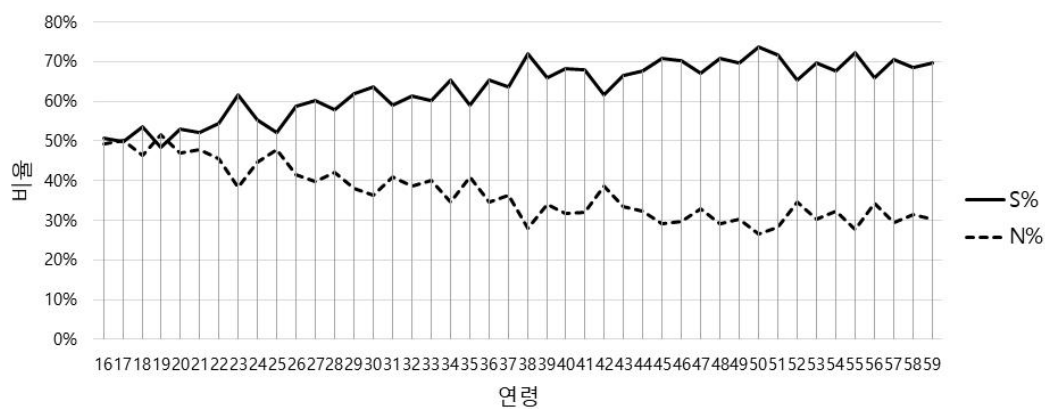


그림 8. 연령별 S - N 선호지표 분포 비율 (N=19,070)

표 6.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S - N 선호지표 분포 비율 (N=9,705)

구 분		남		여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선호지표	S	6,186	63.7	5,972	63.8
	N	3,519	36.3	3,393	36.2
전체		9,705	100	9,36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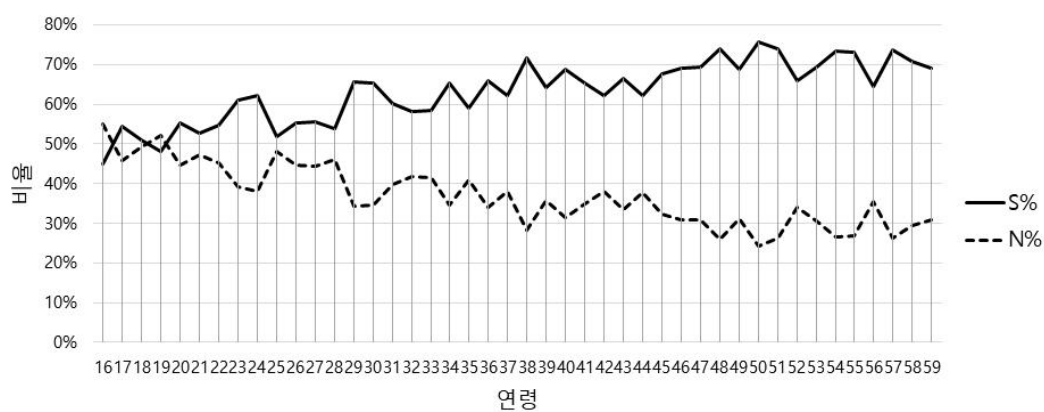


그림 9. 남성의 연령별 S - N 선호지표 분포 비율 (N=9,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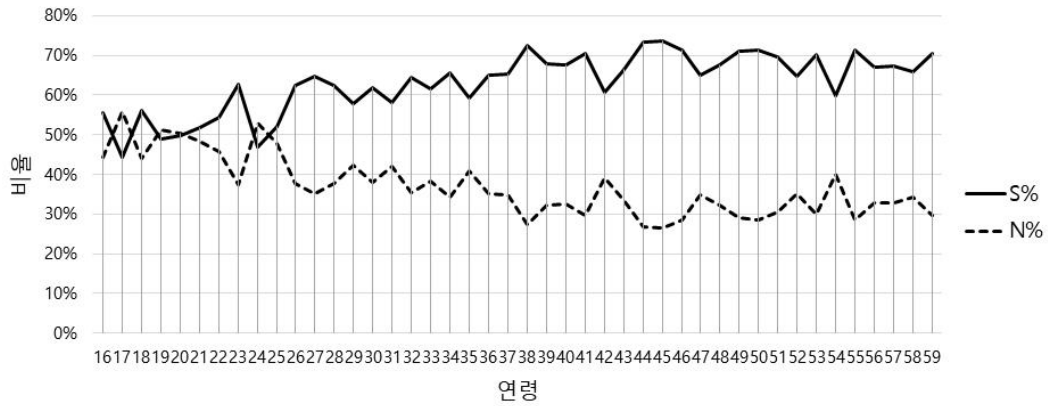


그림 10. 여성의 연령별 S - N 선호지표 분포 비율 (N=9,365)

3) T - F (사고와 감정)

그림 11에 MBTI 자가채점 기준에 따른 연령별 T - F 선호지표 분포를 제시하였다. 16세부터 35세까지 F의 비율이 T의 비율보다 높은 경향이 유지되다가 이후부터 59세까지는 T와 F의 비율이 50:50 수준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7과 그림 12·13에서는 각각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T - F 선호지표 분포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29세 이후 T의 비율이 50% 이상을 유지하며 F보다 높은 경향이 지속되며 T의 비율이 최고 65%까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16~59세의 모든 연령 집단에서 F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T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경향을 유지한다. 16세부터 20대까지는 T와 F의 비율이 3:7 수준으로 비율 차이가 상당하지만 30~50대 집단에서는 T와 F의 비율이 약 6:4에서 5:5 정도로 분포하며 차이가 좁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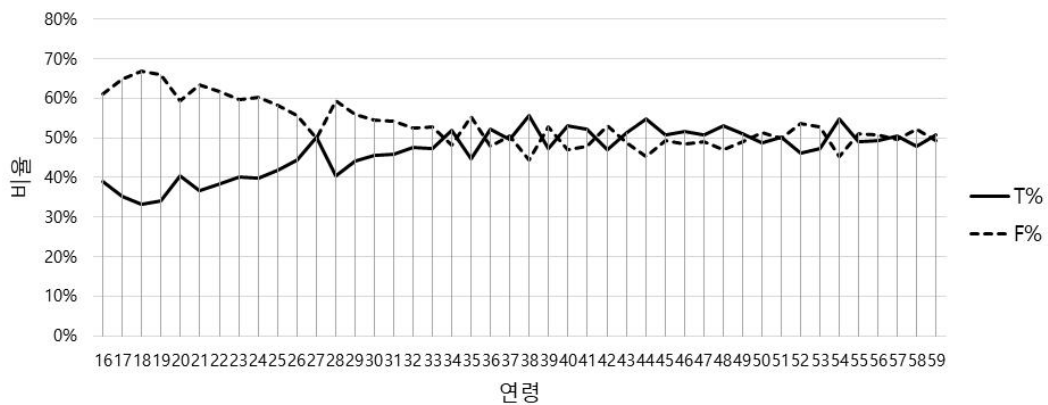


그림 11. 연령별 T - F 선호지표 분포 비율 (N=19,070)

표 7.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T - F 선호지표 분포 비율 (N=9,705)

구 분		남		여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선호지표	T	5,302	54.6	3,688	39.4
	F	4,403	45.4	5,677	60.6
전체		9,705	100	9,36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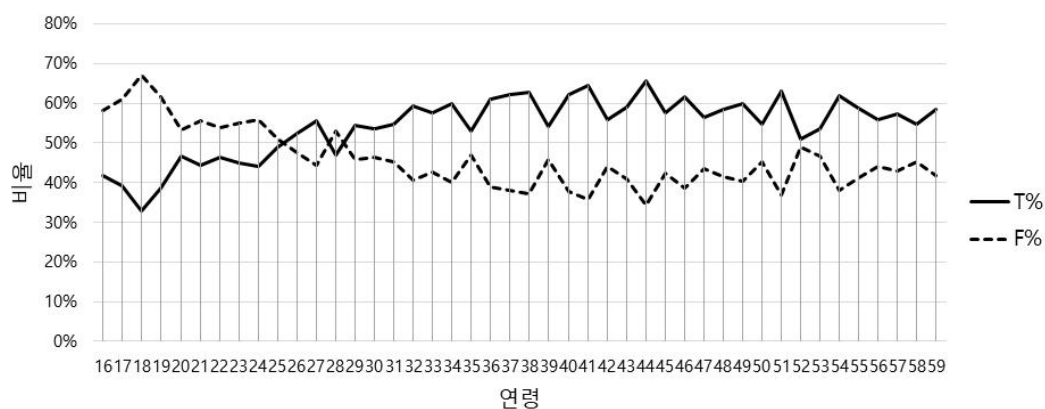


그림 12. 남성의 연령별 T - F 선호지표 분포 비율 (N=9,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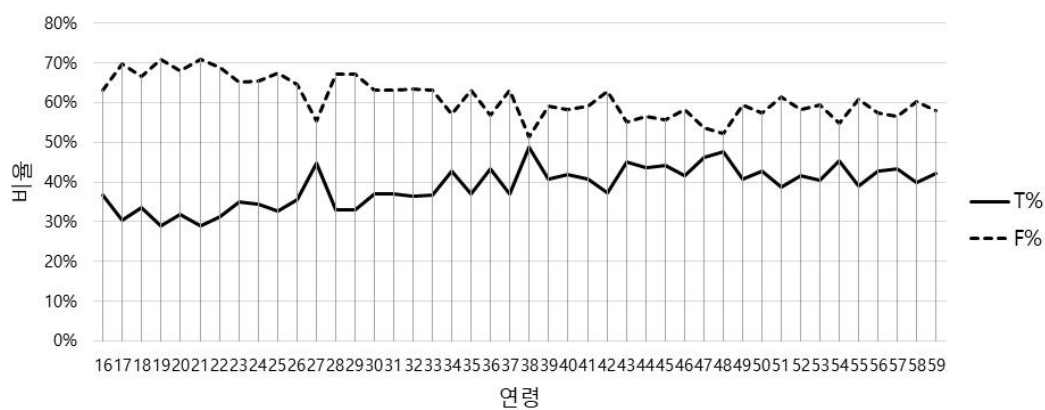


그림 13. 여성의 연령별 T - F 선호지표 분포 비율 (N=9,365)

4) J - P (판단과 인식)

그림 14에 MBTI 자가채점 기준에 따른 연령별 J - P 선호지표 분포를 제시하였다. P의 비율은 16세부터 59세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J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16~27세 사이에는 P의 비율이 J보다 높은 경향이 유지되다가

이후부터 59세까지는 J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이에 따라 P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6~17세의 경우 J의 비율이 약 30%, P의 비율이 약 70%이나, 59세의 경우 반대로 J의 비율은 약 70%, P의 비율은 약 30%로 역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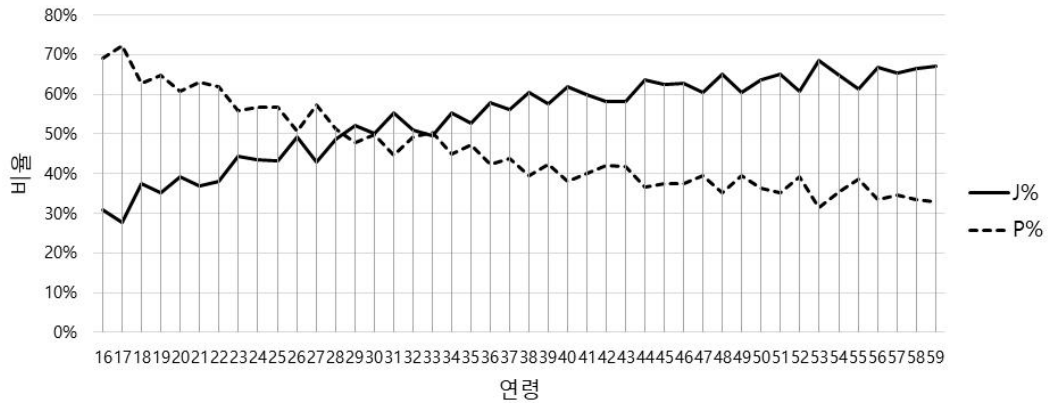


그림 14. 연령별 J - P 선호지표 분포 비율 (N=19,070)

표 8과 그림 15·16에서는 각각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J - P 선호지표 분포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P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J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성은 남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화 시점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16세부터 20대까지 P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J의 비율보다 높지만 30대 이후에는 J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P의 비율보다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16~27세 사이에 P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J보다 높지만 28~33세 사이에는 J와 P의 비율이 50%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34세 이후부터 J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P보다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8.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J - P 선호지표 분포 비율 (N=9,705)

구 분		남		여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선호지표	J	5,433	56.0	5,030	53.7
	P	4,272	44.0	4,335	46.3
전체		9,705	100	9,36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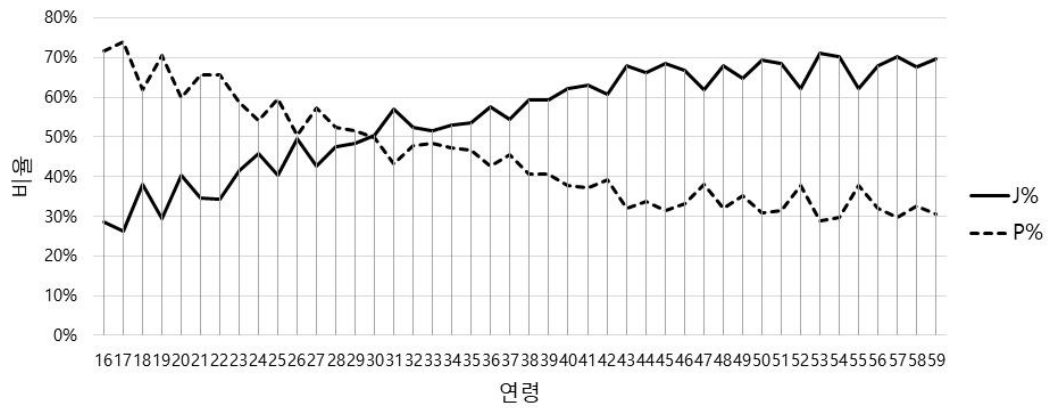


그림 15. 남성의 연령별 J - P 선호지표 분포 비율 (N=9,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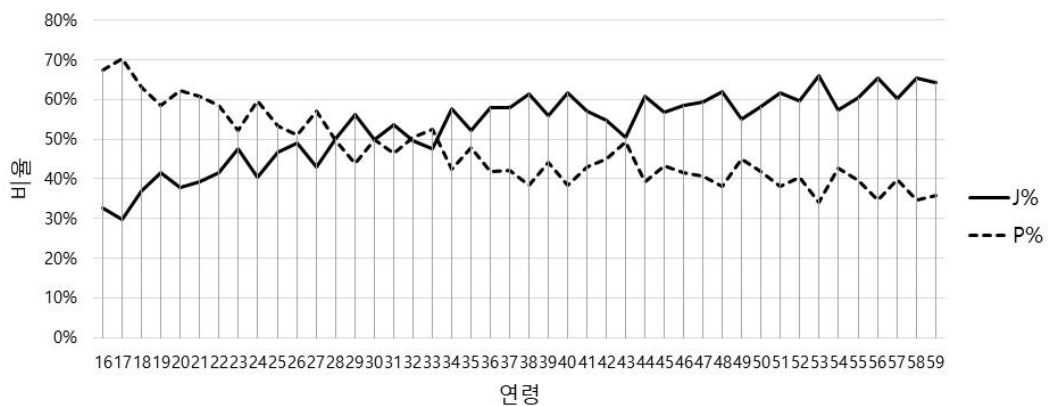


그림 16. 여성의 연령별 J - P 선호지표 분포 비율 (N=9,365)

3. 16가지 유형별 분포

MBTI 검사는 두 개의 채점 알고리즘을 가진 하나의 검사이다. 따라서 두 채점 알고리즘에 의해 산출된 유형분포표의 지표별 빈도는 완벽히 일치할 수는 없어도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두 채점 알고리즘으로 산출한 유형분포표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hi^2=22.391$, $p=.098$ 로 유의 수준 .05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채점체제로 산출한 두 유형분포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일관성 있게 지표별 빈도가 산출되었다. 표 9와 표 10에 MBTI 자가 채점 기준과 컴퓨터 채점 기준에 따른 16가지 유형별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표 9. MBTI 자가 채점 기준에 따른 16가지 유형별 분포 (N=19,070)

		감각(S)		직관(N)						
		사고(T)	감정(F)	사고(T)		구분	N	비율		
내향 (I)	판단 (J)	ISTJ	ISFJ	INFJ	INTJ	선택 호 지 표	E	9,960	52.2%	
		N=2,446	N=1,590	N=553	N=634		I	9,110	47.8%	
		12.8%	8.3%	2.9%	3.3%		S	12,158	63.8%	
							N	6,912	36.2%	
							T	8,990	47.1%	
	인식 (P)	ISTP	ISFP	INFP	INTP		F	10,080	52.9%	
		N=779	N=1,233	N=1,271	N=604		J	10,463	54.9%	
		4.1%	6.5%	6.7%	3.2%		P	8,607	45.1%	
							태도 조 합	IJ	5,223	27.4%
								IP	3,887	20.4%
외향 (E)	ESTP	ESFP	ENFP	ENTP	EP	4,720		24.8%		
	N=792	N=1,379	N=1,854	N=695	EJ	5,240		27.5%		
	4.2%	7.2%	9.7%	3.6%	기능 조 합	ST		6,383	33.5%	
	판단 (J)	ESTJ	ESFJ	ENFJ		ENTJ	SF	5,775	30.3%	
		N=2,366	N=1,573	N=627		N=674	NF	4,305	22.6%	
12.4%		8.2%	3.3%	3.5%		NT	2,607	13.7%		

표 10. MBTI 컴퓨터 채점 기준에 따른 16가지 유형별 분포 (N=19,070)

		감각(S)		직관(N)					
		사고(T)	감정(F)	사고(T)		구분	N	비율	
내향 (I)	판단 (J)	ISTJ	ISFJ	INFJ	INTJ	선택 호 지 표	E	9,866	51.7%
		N=2,575	N=1,558	N=584	N=608		I	9,204	48.3%
		13.5%	8.2%	3.1%	3.2%		S	12,141	63.7%
							N	6,929	36.3%
							T	9,141	47.9%
	인식 (P)	ISTP	ISFP	INFP	INTP	F	9,929	52.1%	
		N=803	N=1,148	N=1,321	N=607	J	10,472	54.9%	
		4.2%	6.0%	6.9%	3.2%	P	8,598	45.1%	
						태도 조 합	IJ	5,325	27.9%
		ESTP	ESFP	ENFP	ENTP		IP	3,879	20.3%
N=836	N=1,308	N=1,914	N=661	EP	4,719		24.7%		
4.4%	6.9%	10.0%	3.5%	EJ	5,147		27.0%		
외향 (E)	판단 (J)	ESTJ	ESFJ	ENFJ	ENTJ		기	ST	6,657
		N=2,443	N=1,470	N=626	N=608	능	SF	5,484	28.8%
		12.8%	7.7%	3.3%	3.2%	조	NF	4,445	23.3%
						합	NT	2,484	13.0%

V. 논 의

본 연구는 MBTI 4가지 선호지표의 양분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인구의 MBTI 유형 및 선호지표 분포 특성을 최신의 자료로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MBTI의 4가지 선호지표별 응답값이 양봉 분포를 이루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험적 히스토그램의 근거가 되는 자가채점 결과로 산출한 히스토그램을 확인하였을 때, 4가지 선호지표 모두 양봉 분포를 이루며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성 혹은 특질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검사는 응답값이 평균 근처에 가장 많이 모이고, 극단으로 갈수록 분포 비율이 낮아진다. 반면, MBTI는 유형론을 바탕으로 하는 검사이므로 응답값이 많이 분포하는 지점이 두 군데로 나타나서 양분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히스토그램의 양상은 이러한 양분성을 확인하는 한 가지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MBTI 4가지 선호지표의 양분성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Bess & Harvey, 2002; Hicks, 1984)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결과가 양봉 분포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분포가 실제로 양분성을 입증하는 것인지, 구적점의 차이나 채점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분포 양상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BTI에는 자가채점 방식과 컴퓨터채점 방식이 있으며, 컴퓨터채점의 경우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MBTI Form M과 Q 검사는 IRT(item response theory, 문항반응이론) 방식을 적용하였고, 글로벌에서 최근 사용하고 있는 MBTI Global Step I & II 검사의 경우 LCS(latent class analysis, 잠재계층분석) 방식을 적용하였다(Myers, et al., 2018). Global Step I & II 검사는 LCS로 채점한 결과 4가지 선호지표 모두 양봉 분포를 이루는 것이 확인되었으나(Myers, et al., 2018) 현재 한국에서 쓰이는 MBTI Form M의 경우 IRT로 채점한 결과에서 양분성이 확인되는지에 대한 국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령별 4가지 선호지표별 분포 비율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연령에 따른 4가지 선호지표별 분포 비율을 확인한 결과 두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났다. 먼저 E-I와 T-F 지표는 연령이 높을수록 50:50에 가까운 비율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와 달리 S-N과 J-P 지표는 연령이 높을수록 약 70:30 수준으로 양극 지표의 비율 차이가 커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약 30년 전 자료인 김정택과 심혜숙(1990)의 MBTI Form G 한국 표준화 데이터에서는 30~50대 성인의 경우 I 비율이 66%로 E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E의 비율이 I의 비율과 유사하게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대 변화에 따라 성인기 대인관계 활동의 중요성이 커짐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성인의 생애 단계별 진로적응과업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이지원, 송보라, 이기학, 2017) 탐색기에 해당하는 20대, 확립기에 해당하는 30~40대, 재적응기에 해당하는 50대 이후 성인 모두 진로적응과업에서 대인관계 경험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20대에는 다양한 조직에서 여러 관계를 맺고 활동하기 시작하며, 30~40대에는 조직 내에서 여러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며 인맥을 넓히고, 업무 상황에서 상사, 동료, 선배와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50대 이후에는 은퇴 후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이전에 알던 사람들을 자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E 지표의 특성이 요구되므로 E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을 수 있다. S-N 지표의 경우 전반적으로 N보다 S 비율이 높고 그러한 경향이 연령 증가에 따라 더욱 강화되는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김정택과 심혜숙(1990)의 결과 및 영국에서 16~64세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Warr, Miles, Platts(2001)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을 찾거나 상상력을 발휘하는 일보다 경험을 신뢰하며 현실적인 일에 집중하고 대응하는 일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T-F 지표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30대 초반까지 F의 비율이 높다가 이후에는 T와 F의 비율이 50:50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래프 양상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남성은 20대 중후반까지 F 비율이 높다가 이후에는 T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16~59세 전 연령에서 F 비율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남성의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 혹은 문화적 압력의 영향으로 T로 반응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김정택, 심혜숙, 2013). J-P 지표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P의 비율이 약 70%에서 약 30%까지 낮아지고 20대 후반을 기점으로 J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김정택과 심혜숙(1990) 및 Warr 등(2001)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20대 후반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직장 장면과 연결해보면, 계획과 일정을 중요시하며 이에 맞춰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MBTI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조직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는 예측 가능한 사람, 분명하고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다(황상민, 권태연, 2012).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처럼 J 지표의 특성이 필요하게 되어 J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MBTI 16가지 유형 분포 비율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자가채점 기준과 컴퓨터채점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두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만들어진 유형분포표에 따르면 한국인은 ISTJ 유형의 빈도가 가장 높고 INFJ 유형의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STJ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MBTI Form M 한국 표준화 당시 표본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다(김정택, 심혜숙, 2013). 반면, INFJ 유형의 경우 한국 표준화 표본에서도 비율이 낮은 편이었으나 16가지 유형 중 비율이 가장 낮은 유형은 아니었다. 그 외 유형 및 선호지표 비율에서도 표준화 표본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을 통해 산출된 자료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MBTI 유형 분포 비율은 현재 한국인 모집단과 가장 유사한 표본 집단을 추출하여 확인한 자료이므로 향후 새로운 한국인의 유형분포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대표표본을 구성하고 2012~2020년 자료를 반영한 최신의 MBTI 유형 분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연령별 선호지표 분포 양상을 살펴본 최초의 자료라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김정택과 심혜숙(1990)이 MBTI Form G(Form M 이전 버전) 검사를 표준화하면서 고등학생, 대학생, 30~50대 성인 집단으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선호지표 및 유형별 분포 비율을 확인한 바가 있으나, MBTI Form M 검사 표준화 당시에는 전체 집단의 분포 비율만 제시하였다(김정택, 심혜숙, 2013). 따라서 16~59세에 이르는 연령의 MBTI 4가지 선호지표별 분포 양상을 확인한 사례는 본 연구가 유일하다. MBTI 사용자는 자신의 유형을 알게 되면 해당 유형이나 다른 유형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알고 싶어 한다. 이때 한국의 대표 표본을 토대로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신의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한국의 인구 분포와 유사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인 전국대표표본의 MBTI 유형 분포표는 향후 다양한 표본 집단의 MBTI 유형 분포 특성을 모집단의 특성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MBTI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와 조직 문화 및 조직 개발 장면 및 직업 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상담 장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연구자 및 실무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도부터 인구 통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성을 지닌 표본 집단을 구성하고, 미국 전체 인구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형분포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Hammer & Mitchell, 1996), 현재는 미국의 TMBC(The Myers-Briggs Company)에서 글로벌 MBTI Step I과 Step II 검사 표준화 당시 표본을 바탕으로 최신의 글로벌 유형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Myers, et al., 2018). 또한 전국대표표본의 유형분포 외에도 직업별로 세분화한 유형 분포를 SSR 정보와 함께 제공하여 일터에서 MBTI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Schaubhut & Thompson, 2009). 해외의 경우 다양한 전공이나 직업별 집단의 4가지 선호지표 및 16가지 성격유형 분포를 일반 집단과 비교하여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교수법 적용 등을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Alsalamah, AlHamdani, Albassam & Alasgah, 2017; Claes, Storms & Brabanders, 2018; Cohen, Ornoy & Keren, 2013; Shen, Prior, White & Karamanoglu, 2007; Varona, Capretz & Piñero, 2011).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령별 선호지표 분포 자료는 약 10년에 걸친 기간 중 검사에 1회 응답한 데이터에서 추출한 것이므로 시간 변화에 따른 개인의 변화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종단연구를 통해 한 개인이 연령 증가에 따라 검사 응답값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데이터가 아니므로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는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와 더불어 연령별 집단의 특성이 모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령별 선호지표 분포의 특징이 시간의 변화와 관계없이 어느 시점에서나 유사하게 개인의 발달적 특징처럼 나타나는 것인지, 혹은 세대가 바뀔 때 따라 연령별 특징이 함께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주기를 두고 연구를 지속할 때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인 전체 인구라는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을 구성하여 유형 분포 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다양한 직업별 유형 도표를 마련하여 해당 자료가 필요한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보람, 주은선 (2019). MBTI 성격유형과 포커싱적 태도의 관계: 대학생을 중심으로. *심리유형과 인간 발달*, 20(2), 1-18.
- 강혜진, 이규민 (2020). 잠재변수의 비정규성, 검사 문항 수, 피험자 수가 Davidian 곡선을 적용한 IRT 모수 추정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33(2), 533-559.

-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이향은, 이준영, 이수진, 서유현, 권정윤, 한다혜 (2020). 트렌드코리아 2021. 서울: 미래의 창.
- 김성훈 (2012). BILOG-MG를 사용한 IRT 모형 모수의 추정에서 기저 능력분포의 경험적 추정이 문항 모수 추정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25(2), 317-336.
- 김정택, 심혜숙 (1990). 성격유형검사(MBTI)의 한국 표준화에 관한 일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 44-72.
- 김정택, 심혜숙 (2013). MBTI Form M 매뉴얼. 서울: 어세스타.
- 김정택, 정덕자 (1998). MBTI 타당도에 관한 일 연구: 성격진단검사와의 상관연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5(1), 25-54.
- 심리학용어사전 (2014). *심리 유형론*.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18685&cid=41991&categoryId=41991>
- 유정이 (1999). MBTI 를 통해서 본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유형학회지*, 6(1), 107-120.
- 이지원, 송보라, 이기학. (2017). 성인의 생애단계별 진로적응과업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1077-1114.
- 장승민, 강연욱 (2012). 정규분포가 가정된 심리검사의 규준추정을 위한 모형 기반 접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4), 923-944.
- 장현재, 탁진국 (2004). MBTI 성격유형과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행동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7(3), 467-483.
- 정예린, 원미진 (2021). 성격 유형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유형 연구. *심리유형과 인간발달* (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22(1), 25-47.
- 한명우 (1998). MBTI 를 활용한 심리기술훈련 프로그램이 양궁선수들의 경쟁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유형학회지*, 5(1), 67-79.
- 황보식, 장해숙 (2016).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대인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16(3), 11-26.
- 황상민, 권태연. (2012). 조직에서 채용하고 싶어 하는 인재의 특성: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직의 인재상.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1), 59-83.
- Alsalamah, M., AlHamdani, A., Albassam, M., & Alasgah, Y. (2017). Distribution of the Myers Briggs Type Indicator types in an Emergency Medicine residency training program in Saudi Arabia.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in Developing Countries*, 11(1).
- Bess, T. L., & Harvey, R. J. (2002). Bimodal score distributions and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fact or artifac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8(1), 176-186.
- Bock, R. D., & Aitkin, M. (1981). Margina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of item parameters: Application of an EM algorithm. *Psychometrika*, 46(4), 443-459.
- Claes, N., Storms, H., & Brabanders, V. (2018). Personality of Belgian physicians in a clinical leadership program.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18(1), 1-9.
- Cohen, Y., Ornoy, H., & Keren, B. (2013). MBTI personality types of project managers and their success: A field survey. *Project Management Journal*, 44(3), 78-87.
- Emre, M. (2020). 성격을 팝니다 (이주만 역). 서울 : 크로스미디어. (원서 출판 2018)
- Hammer, A. L., & Mitchell, W. D. (1996). The distribution of MBTI types in the US by gender and ethnic group.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37, 2-15.
- Hicks, L. E. (1984).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of some assumptions of an explicitly typological

-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5), 1118-1131.
- Jung, C. G. (1921). *Psychological types*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6, Translated by R.F.C Hull(1971)).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C. G. (1971).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23.)
- Li, Z., & Cai, L. (2018). Summed score likelihood-based indices for testing latent variable distribution fit in item response theor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78(5), 857-886.
- Macdaid, G. P. (1997). *CAPT data Bank*. Retrieved from <https://www.myersbriggs.org/my-mbti-personality-type/mbti-basics/type-tables.htm>
- Macdaid, G. P., McCaulley, M. H., & Kainz, R. I. (1995). *Atlas of type tables*. 4th ed. Gainesville, FL : Center for Applications of Psychological Type, Inc.
- Mislevy, R. J. (1984). Estimating latent distributions. *Psychometrika*, 49(3), 359-381.
- Monroe, S. L. (2014). *Multidimensional item factor analysis with semi-nonparametric latent dens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SA.
- Monroe, S., & Cai, L. (2013). *Estimation of a Ramsay-curve item response theory model by the Metropolis-Hastings Robbins-Monro algorithm* (CRESST Report 834).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Evaluation, Standards, and Student Testing (CRESST).
- Myers, I. B. (1995). *MBTI 개발과 활용*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역). 서울: 어세스타. (원서 출판 1987)
- Myers, I. B., & Kirby, L. K. (2013). *성격유형 안내* (김명준, 안여진 역). 서울 : 어세스타. (원서 출판 1998)
- Myers, I. B., McCaulley M. H., Quenk N. L., & Hammer A. L. (2013). *MBTI Form M 매뉴얼*. (김정택, 심혜숙 역). 서울: 어세스타. (원서 출판 1998)
- Myers, I. B., McCaulley M. H., Quenk N. L., & Hammer A. L. (2018). *MBTI Manual for the Global Step I and Step II Assessments*. Sunnyvale, CA: The Myers-Briggs Company.
- Schaubhut N. A., & Thompson R. C. (2008). *MBTI Type Tables for Occupations*. CA: CPP, Inc.
- Shen, S. T., Prior, S. D., White, A. S., & Karamanoglu, M. (2007). Using personality type differences to form engineering design teams. *Engineering education*, 2(2), 54-66.
- Varona, D., Capretz, L. F., & Piñero, Y. (2011). Personality types of Cuban software developers. *Global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13(2), 77-81.
- Warr, P., Miles, A., & Platts, C. (2001). Age and personality in the British population between 16 and 64 year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4(2), 165-199.

원 고 접 수 일 2021. 09. 24

수정 원고 접수일 2021. 10. 18

게 재 결 정 일 2021. 10. 25

심리유형과 인간발달

Psychological Type and Human Development

2021. Vol. 22, No. 2, 19-41

The Study on the MBTI Type Distribution in the Korean National Representative Sample Based on 2012-2020 Data

Miri Song · Bomin Park · Saehaneul Kang · Myungjoon Kim
Assesta Co., Lt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imodality of the four preferences, which are the basis for the MBTI 16 type distribution table, and to calculate the distribution ratio of Koreans by each type of MBTI. To this end, a national representative sample was composed of 19,070 data out of the number of people who conducted the MBTI Form M instrument between 2012 and 2020. When constructing the sample, it was extracted as a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so that the age and gender ratio were the same as those of the Korean population. Age ranged from 16 to 59, of which 9,705 were male and 9,365 were fema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sponse data of the four preferences of MBTI showed a bimodal distribution, and distribution patterns of the four preferences were different for each age. For the distribution by 16 types, the ISTJ type had the highest ratio, and the INFJ type had the lowes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structed a national representative sample based on demographic data of Korea for the first time and confirmed the latest type distribution reflecting data since 2012. The distribution table by four preferences and 16 personality types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be useful data for MBTI users who want to obtain necessary information using SSR (Self-Selection Ratio).

Key words: MBTI, Bimodality, National Representative Sample, Type Table, Self-selection Ratio